

한국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특징
:팩트체크 언론인들의 사실 인식과 사실 검증과정 탐색을 중심으로

정은령*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센터장)

이 연구는 최근 한국 언론계에 새로운 흐름으로 대두된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성격을 팩트체크를 수행하는 언론인들의 사실 인식과 사실 검증 과정에 대한 탐색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해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1년 이상 수행한 기자 1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연구결과,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사실이 기존의 발표기사, 발생기사가 다루는 사실과는 다른 층위의 사실이며 현재의 뉴스 생산 환경에서는 이중 층위의 사실이 뉴스룸 안에서의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에 추구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객관성을 추구하지만, 검증대상을 선정할 때 소속사나 기자 개인이 갖고 있는 편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진술했다. 팩트체크 기사의 서술양식으로는 기존의 역피라미드 구조와는 달리 기승전결의 맥락을 가진 해설형 기사가 채택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언론 상호간의 교차검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상호 견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한국 언론의 관행에 제기하는 함의를 검토했다.

핵심어: 팩트체크, 팩트체크 저널리즘, 팩트체크 언론인, 객관주의, 사실, 해설

* ryung0305@snu.ac.kr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사실을 정확히 취재하는 것은 한국 언론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다. 1997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언론인 의식조사에서 ‘정확성’은 언론인들이 스스로 꼽은 취재보도의 원칙 중 부동의 1위를 고수해 왔다(남재일·이강형, 2017;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그러나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한국 언론인들의 가치관과는 달리 정확성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언론인들의 자기 평가 수준은 낮다. 중립성 등 여타의 취재 보도의 주요 원칙과 비교했을 때 언론인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값 평균이 가장 큰 항목이 정확성이었다(남재일·이강형, 2017). 정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정확성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인들의 자기 평가는 한국 언론의 사실성 추구의 실패라고 규정할 만하다. 사실 확인이 취재와 보도의 초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한국 언론의 본질적 위기를 드러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속의는 진실한 정보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이민웅, 2002, 46쪽)는 점에 비춰볼 때 사실성 추구의 실패는 언론 내부의 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균열을 초래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위기의 와중에 최근 한국 언론계에는 이른바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등장했다. 모든 언론 활동의 일상적인 수칙인 사실 검증(fact check)을 수식어로 내세운 저널리즘 양식의 출현은 뉴스 수용자들은 물론 뉴스의 생산자인 언론인들이나 연구자들에게도 낯설다.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탐사 저널리즘과 같은 하위 장르의 출현인지, 저널리즘 혁신의 과정에서 생겨난 일시적 흐름인지 그 존재와 기능이 여전히 잘 규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한국 언론계에서 최근 수 년 사이 하나의 흐름으로 떠오른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현황을 팩트체크를 직접 수행하는 언론인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선보인 이후 공공 정보 서비스 성격의 팩트체크 플랫폼에 대한 연구(최순욱·윤석민, 2017), 수용자들의 팩트체크 뉴스 영향력 인식, 팩트체크 결과의 수용자 설득 효과(김선호·백영민, 2017; 백영민·김선호, 2017), 팩트체크 뉴스에 대한 내용 분석(정은령, 2017) 등 제도화 효과, 내용 측면에서 팩트체크 저널리즘 현상에 접근한 연구들은 있었지만, 팩트체크 뉴스 생산자인 팩트체크 언론인에 대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저널리즘을 이해하려면 기사를 파악해야 한다”(장바울·심해련·박재영, 2016, 82쪽)는 명제가 팩트체크 저널리즘에도 적용되는 것이라면, 아직 한국 언론계에서 그 존재와 기능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팩트체크 저널리즘에 대한 연구가 팩트체크 언론인들의 자기 인식과 구체적인 규범 실행에 대한 탐색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 연구는 팩트체크 언론인들이 자신들이 다루는 사실을 무엇이라고 인식하는지, 검증 대상의 선정과 결과 판정에 편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사실 검증의 조사과정과 기술(記述)상의 특성,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기자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각각 탐색해 보고자 한다.

팩트체크 언론인들이 객관성의 핵심요소인 사실성을 어떻게 인식하며 사실 검증의 과정에서 기존의 검증 관행과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한국형 객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내재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현대 저널리스트들의 전문직주의의 근간이기도 한 객관주의(김경모 신의경, 2013; 박진우, 2015; 박진우 송현주, 2012; Anderson & Schudson, 2009; Schudson, 2001)는 한국에 도입되면서 핵심적인 가치를 내면화하지 못한 채 상징적 이데올로기로만 활용(이재경, 2007)되어 왔다고 비판 받아왔다. 기사 텍스트의 정확성만으로 객관성을 평가하는 ‘형식적 사실주의’(남재일, 2008)와 객관주의가 등치되거나, 언론이 정치·경제 권력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역피라미드나 6하 원칙 등의 형식만을 차용해 객관주의로 미화한 뒤 이 형식에 대한 전유권을 기자의 전문성으로 치부(박재영 이완수, 2008; 안수찬, 2007; 유선영, 1995)해 온 것이라는 연구들이 ‘한국형 객관주의’에 대한 비판에 구체성을 더해왔다.

미국의 언론계에서 저널리즘 혁신운동으로 등장한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객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석주의적 전환(interpretive turn)(Barnhurst, 2014; Graves, 2016)의 발전 양태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검증 대상 선정의 정파성, 저널리스트의 사실 인식 불가능성 등에 대한 논쟁을 거쳐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쟁점에 대해 한국의 팩트체크 언론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현재의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한국 언론의 고질로 꼽히는 경향성 혹은 정파성(김동윤·김성해·유용민, 2013; 이준웅, 2010; 최진호·한동섭, 2012)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능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기자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팩트체크 저널리스트들의 자기 진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성원들의 담론을 통해 사회현실의 해석을 공유하는 해석공동체(Zelizer, 1993)인 기자 사회가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야말로 이 새로운 흐름이 한국 언론계에 어떤 형태로 뿌리내릴 것인지 그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선행연구 검토

1) 해석적 전환(interpretive turn)으로서의 팩트체크 저널리즘 운동

최근 30여 년 간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기원은 전통적인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저널리즘 운동(movement)의 성격이다(Graves, 2016). 본격적인 팩트체킹은 공화당의 조지 H. W. 부시 후보와 마이클 듀카키스 후보가 1988년 대선에서 겨뤘을 때 워싱턴 정가를 취재하던 기자들 사이에서 싹텄다. 1988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양 후보 진영이 보여준 정치 광고 등은 “사실성과 정확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Graves, 2016, p.57)이었다. 워싱턴 정가를 오랜 기간 취재한 워싱턴 포스트의 노장 기자 데이비드 브로더는 기자들이 더 이상 객관적 태도를 취하는 방관자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진실의 판정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칼럼을 수년에 걸쳐 게재하며 팩트체크 운동에 불을 당겼다(Adair & Holan, 2011). 브로더는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정치보도에 대한 한계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유권자는 ‘그는 이렇게 말했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고(He said, she said)’라는 보도 외에는 (정치적 판단의 근거로 삼을만한) 아무런 결론이 없는 상태에 내던져져 왔다”(Spivak, 2010)고 기자들의 보도 관행을 비판했다.

브로더의 주장처럼 기존의 언론사들이 수행해온 팩트체커가 화자가 말한 내용을 정확하게 옮기는 것을 팩트체커라고 간주한다면, 새로운 팩트체커는 인용구 안의 말이 사실인가를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구별할 수 있다(Graves & Glaisyer, 2012). 즉 화자의 뜻을 훼손하지 않고 정확하게 ‘받아쓰기’ 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팩트체커가 아니라 화자가 한 말 그 자체의 진실성 여부를 가리는 것이 현재의 팩트체커의 핵심인 것이다.¹⁾

언론에 단순 전달자가 아닌 책임있는 해설자가 되기를 요구하는 흐름은 20세기 후반 미국 저널리즘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었다. 반허스트(Barnhurst, 2014)는 이를 해석적 전환(interpretive turn)이라고 정의했다. 1960년대 이후 탐사 저널리즘(investigative journalism)이 미군이 베트남 전에서 저지른 미라이(My Lai)학살을 밝히고, 워터게이트 보도로 닉슨의 사임을 불러오는 가운데, 탐사기자협회(Investigative Reporters and Editors)가 탄생했다. 탐사 저널리즘과 함께 심층보도, 장문 보도(long journalism), 해설 보도(explanatory report)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 흐름(Forde, 2007)이 미국 언론계에 등장했다. 이 흐름의 공

1) 미국의 팩트체커 기관들은 검증대상의 사실성의 정도를 판정해 이를 수용자들에게 제시해왔다. ‘폴리티팩트’의 경우 ‘새빨간 거짓말’부터 ‘진실’까지 6단계로 구분된 진실 검증기(Truth-O-Meter)를 운영하며, 워싱턴 포스트의 팩트체커는 검증대상의 사실성이 낮을수록 더 많은 피노키오 마크를 부여한다.

통점은 사건 발생 자체를 기술하기보다는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3개 신문을 장기 조사한 결과 고전적인 역피라미드 형식으로 개별적인 사건을 다루던 기사가 프론트 페이지에 나가는 비율이 1955년 85퍼센트였던 것이 2003년에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개별 기사들은 단편적인 사건의 제시가 아닌 큰 그림을 제시하는 한편 다른 사건들과의 관계를 제시하는 맥락 저널리즘(contextual journalism)(Fink & Schudson, 2014)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해석적 전환은 저널리즘이 기계적인 객관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서, 진실과 권력의 관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온 역사를 반영한다(Hallin, 1992; Nerone, 2013). 이러한 전사(前史)에 비추어 그레이브스(Graves, 2016)는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분석적 저널리즘(analytical journalism)을 지향해온 해석적 전환 흐름에 자리매김된다고 주장한다.

현대적인 팩트체크의 출현에는 언론 보도를 둘러싼 기술적 환경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게이트키퍼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던 지면과 방송 시간의 희소성(scarcity) 등이 해소된 인터넷 환경에서 제도권 언론이 아닌 수많은 정치 블로거들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게시물을 쏟아내기 시작하자 미국 언론들이 그 해독제 성격으로 앞다퉀 팩트체크 포맷을 도입했다(Dobbs, 2012).

한국에서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2012년 오마이뉴스가 대통령 선거 공약을 검증하는 코너인 ‘오마이팩트’를 신설하면서 선보였다. 출범 당시 오마이뉴스는 미국의 팩트체크 검증기관인 폴리팩트의 진실검증기(Truth-O-Meter)를 변형한 판정표를 선보였다. 이후 2014년 9월 JTBC의 메인뉴스인 JTBC뉴스룸이 팩트체크를 고정 코너로 신설해 주 4회 방송하면서 팩트체크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문용필, 2017).

2017년은 한국 언론사에서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원년”(김선호·김위근, 2017)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선거 기간 각 언론사가 보도한 팩트체크 결과를 별도 섹션으로 운영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팩트체크 코너에는 20여 개 언론사의 대선 관련 후보자 발언 공약 검증 내용이 게시됐다. 각 언론사의 팩트체크가 활발해진 것과 더불어 팩트체크를 위한 언론사 간의 느슨한 협업구조도 선보였다. 2017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언론사와 대학 간의 협업 모델로 출범한 SNU팩트체크(최원형, 2017)에는 2018년 8월 현재 27개 언론사가 참여해 정치인과 공직자 발언의 사실 여부,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주제에 걸쳐 대중에게 회자되는 사실적 진실의 사실성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²⁾.

19대 대선 기간을 앞두고 시작된 한국 언론사들의 팩트체크 붐은 정치인들의 발언을 검증하여 유권자들에게 참 거짓의 판정 결과를 알린다는 점에서 미국의 정치중심 팩트체크와 외견상 유사해 보이지만, 그 출발점에서 언론 내부의 성찰적인 운동이기보다는 언론 외부에 향한 위기의식과 비판의 성격이 강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 등 어지러운 시국을 틈타 가짜 뉴스가 대거 생산됐는데 오는 5월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왜곡, 선동할 가능성이 높다”(매일경제신문, 2017)는 인식이 대표적이다. 즉 미국의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기자 공동체 내부의 저널리즘 혁신 운동으로 발전해 온 것이라면, 2017년 대선을 기점으로 확산된 한국 언론계의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문제의식은 제도 언론 ‘바깥’에 대한 위기의식과 반격의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2)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쟁점

사실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사실에 대한 참 거짓의 판정을 수용자에게 제시하는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양식은 ‘민주사회의 시민들에게 자치(自治)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³⁾는 공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논쟁을 낳아왔다. 한편으로는 팩트체크가 다루는 사실(fact)이 무엇인가라는 인식론적 논쟁이 벌어져 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팩트체크가 특정 정치 당파에 편향적이라는 논란에 맞닥뜨려 왔다.

2) SNU팩트체크(factcheck.snu.ac.kr)의 <SNU팩트체크 소개>

3) PolitiFact(www.politifact.com)의 our process

(1) '사실(fact)'의 인식 가능성 여부

팩트체크 저널리즘에 쏟아지는 비판과 회의 중 근본적인 것은 팩트체크의 존립근거인 사실검증에서 '사실(fact)'이라는 것이 팩트체크를 하는 언론인들이 판정하는 것처럼 명료하게 포획되는냐는 것이다. 우신스키와 버틀러(Uscinski & Butler, 2013)는 저널리스트들이 혼란스러운 정치의 세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동원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개입은 어떤 발언에 대해서 편견이 없게 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우신스키 등은 "정치에서의 주관적인 문제들은 복잡하고 모호하며 심지어 경험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해석을 할지라도 여러 가지 충돌하는 해석에 열려있다"(p.163)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팩트체커가 검증한 사실에 대해서 정치가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정치가를 거짓말쟁이로 판정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마진(Amazeen, 2015)은 우신스키와 버틀러가 팩트체크 언론인들이 사실이 자명한 것인 것처럼 여긴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자명하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팩트체크가 더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팩트체크는, 우신스키와 버틀러가 주장한 것처럼 정치적인 논쟁에서 다루지는 주관적인 문제들을 검증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검증이 가능한 사실에 관한 발언을 다루는 것이라고 진제한 뒤 팩트체크 언론인들의 판정도 우신스키와 버틀러의 주장처럼 흑백논리가 아니라 오히려 참과 거짓을 이분법적으로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논박한다.

그레이브스(Graves, 2017)는 우신스키와 버틀러의 인식론 논쟁에 대해 직업적인 저널리스트들에 의해 수행되는 객관주의 규범의 미묘함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저널리즘이 다루는 사실은 설(Searle, 1995)이 말한 제도적 사실(institutional facts)의 세계이며 제도적 사실이란 원시적이고 단단하고 논쟁할 여지가 없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아니라, 복잡하고, 조심스럽게 공교화되었으며 집합적으로 만들어진 것(Latour, 2005)임을 강조한다.

그레이브스는 직업적인 언론인들은 사실에 대해 흑백논리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우리의 목표이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도 이를 잡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여전히 이 목표를 품고 있는 것"(Kobach & Rosenstiel, 2007, p.45)이라는 유보적이고 겸양적인 직업윤리를 견지함을 강조한다. 그는 셔슨을 빌려 20세기에 확립된 객관주의는 뉴스가 사실을 반영한다는 순진한 경험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출현한 것이며, "사실이란 ... 세계의 상(相)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 타당성을 갖게 된 진술"(facts ... are not aspects of the world, but consensually validated statements about it)(Schudson, 1978, p.6) 이라고 주장한다.

그레이브스는 우신스키의 주장처럼 정치의 영역에서는 사실을 가릴 수 없고, 오로지 다른 의견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과는 달리 합리적이고 증거에 의해서 지지되며 전문가들의 합의와 일치하는 사실적인 논증(factual argument)을 의견(opinion)으로 등치시켜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사실에 대한 이러한 인식론적 논쟁 가운데 한국의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자신들이 다루는 사실을 무엇이라고 인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했다.

연구문제 1.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실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2) 선택 편향의 문제

팩트체크의 과정에서 불거지는 또 하나의 쟁점은 검증대상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것이다. 무엇을 팩트체크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는 팩트체크 언론인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도전적인 과제다. 팩트체크닷컴⁴오, 폴리티팩트, 워싱턴포스트의 팩트체커 등 미국의 3대 팩트체크 기관⁴은 검증대상이 의견(opinion)이

4)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일찍 시작된 미국에서는 다수의 기관과 개인들이 팩트체크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니라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강조한다고 해서 팩트체크 저널리스트들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대상을 선택한다는 주장이 합리화되지는 않는다.

가치를 사실과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객관주의 모델의 핵심이다(Schudson, 2001). 가치를 사실과 분리하는 객관주의를 통해 저널리즘은 정치적 세력이나 시장에 의해 쉽게 공격받을 수 있는 ‘취약한 직분(uninsulated profession)’(Schudson, 1978)을 방어해 왔다. 그러나 퍼트남(Putnam, 1981)이 갈파한 것처럼 사실과 가치는 불가분의 관계다. “모든 사실은 가치를 적재하고 있으며 모든 가치는 사실을 적재하고 있는 것(every fact is value loaded and every one of our values loads same fact)”(p. 201)이다. 언론이 다루는 사실은 증거(evidence)와 해석(interpretation)의 조합에 의지하며 이 사실들은 가치가 내재된 제도적이고 정치적인 맥락 하에 있다는 것이 뉴스 사회학(sociology of news)의 고전적인 관찰(Gans, 1979; Tuchman, 1978)이었다. 객관주의의 한계에 대해 비판했던 뉴스 사회학자들의 문제의식이 팩트체크의 검증대상 선정과 판정 기준에 대한 논란을 통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마리에타와 바커, 바우저(Marietta, Barker & Bowser, 2015)는 기후변화, 인종주의의 영향, 국가 부채의 귀결 등 세 개의 논쟁적 사안에 대한 폴리팩트와 팩트체크닷오르그, 워싱턴 포스트의 팩트체커를 내용분석으로 비교한 결과 검증대상과 검증에 대한 판정에서 일치도보다는 상이성이 두드러진다고 보고했다. 인종 문제에 대해서는 폴리팩트가 여러 번 정치인들의 발언을 검증했지만, 팩트체크닷오르그나 팩트체커는 2년 동안 이 주제를 다루지 않았다.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세 팩트체크 기관이 기후변화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만 거짓이라고 판정하는 결과를 동일하게 내놓았고, 워싱턴 포스트의 팩트체커와 팩트체크닷오르그는 기후변화가 사실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았다.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세 개 기관의 판정이 엇갈렸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마리에타 등은 팩트체커들이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을 가질 수 있으며 판정 결과는 상호모순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폴리팩트와 팩트체커가 검증대상을 상호 교차검증했는지, 검증결과 판정에 일관성이 있었는지를 판정 등급 간 신뢰성(inter rater reliability)으로 검토한 림(Lim, 2018)도 마리에타 등의 결론처럼 팩트체커들이 동일한 검증대상을 교차검증하는 경우는 드물며, 판정 결과도 특히 절반의 진실 등 회색지대라고 할 수 있는 판정에서는 일관성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보고했다. 즉 팩트체크의 검증대상 선정은 사회과학적인 방법처럼 체계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5).

검증대상 선정의 주관성에 더해 검증대상 선정이 당파성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비난도 끊이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보수진영인 공화당이 진보진영인 민주당에 비해 더 많이 거짓 발언을 한 것으로 팩트체크 기관들에 의해 판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Ostermeier, 2011; Reeve, 2013; Rogerson, 2013).

양당제의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언론도 정치적 양극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왔다. 특히 6공화국 이래 “보수세력이 집권하면 개혁적 신문이 비판에 앞장서고 개혁 세력이 집권하면 보수 신문이 비판에 앞장서는 양상이 전개”(채백, 2015, 469쪽)되면서, 언론이 자사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지지하는 특정후보는 유리하게 보도하고, 지지하지 않는 유력한 상대후보를 비판함으로써 권력 창출에 개입(최진호·한동섭, 2012)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언론사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파적 보도를 해 왔다는 것이 수용자들 앞에 드러났을

이 중 2003년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대학과 언론인의 협업모델로 시작한 팩트체크닷오르그(FactCheck.Org)와 언론사 기반의 독립형 팩트체커인 폴리팩트(PolitiFact.com), 기자 개인의 역량에 기초한 워싱턴 포스트의 팩트체커(The Fact Checker)를 흔히 3대 기관으로 꼽는다 (마동훈·오택섭·김선혁, 2013).

5) 폴리팩트의 창설자인 빌 아데어는 이에 대해 “우리는 뉴스 판단에 따른다. 우리는 모두 사회과학자가 아닌 저널리스트들이다(We are guided by news judgement. We are all journalists, we are not social scientists)”라고 단언했다(Graves, 2016,p.93).

때 이를 객관성으로 교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보다 노골적인 ‘편향 전략’(bias strategy)을 구사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최영재, 2005).

국내외에서의 보도의 정치적 편향성에 관한 이러한 논쟁들은 필연적으로 팩트체크의 대상 선정이 팩트체크를 하는 언론인 개인이나 혹은 팩트체크 언론인이 속한 언론사가 가진 편향에 영향받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로부터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했다.

연구문제 2.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소속사나 기자 개인의 편향성이 팩트체크의 대상 선정이나 검증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3)한국형 객관주의 관행과 팩트체크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사실성(factuality)은 객관주의의 핵심요소다. 한국 언론에서 객관주의의 역사는 서구 객관주의 인식의 본체는 받아들이지 못한 채 역 피라미드 구조, 6하원칙 등 보도의 형식만을 차용한 ‘객관주의의 파행적 형식화’(유선영 1995, 122쪽)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지배 권력과의 정치적 경제적 타협 하에서 정치적 통제의 부산물로 형성된 객관주의(박재영·이완수, 2008)는 “객관성을 기사 텍스트의 정확성만을 갖고 평가하고자 하는 ‘형식적 사실주의’”(남재일, 2008, 262쪽)로 귀결됐다. 즉 기사에 나타나는 정확성만이 객관성의 척도가 되면서 현실과의 관련성은 누락된 것이다.

형식적 사실주의를 구성하는 틀로는 역 피라미드 구조가 꼽힌다. 역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리드나 첫 문장이 관점을 정하면 반대되는 다른 관점이나 다른 시각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진다(남재일, 2008). 기자는 자신이 설정한 ‘리드의 뒷’에 걸려, 기사를 예정된 방향으로 몰고 가고 독자는 다른 시각을 보여주지 않는 폐쇄된 기사 안에서 기자가 정해놓은 방향을 강요받을 뿐이다(남재일, 2008; 박재영, 2006). 이러한 역피라미드가 기사의 양식으로 지배력을 갖는 이유는 한정된 지면이나 시간 안에 경제적으로 기사를 압축해서 담아내기 위해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역 피라미드 구조는 기사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한편, “취재원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세우는 파편적이고 맥락 없는 보도”(유선영·이오현, 2001, 17쪽)를 담은 그릇 노릇을 해 왔다고 비판받는다.

한국형 객관주의 관행의 또 하나의 특징은 투명성 부족이다. 취재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고 복원이 가능하여 검증 가능성이 높을수록 품질이 높은 뉴스(이준웅 김경모, 2008)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객관주의 보도에서 투명성은 “낮선” 용어다(박재영, 2013). 취재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관을 사람처럼 간주해 묘사하는 의인화 서술방식, 익명 정보원의 발언에 부정적 내용을 포함해 직접 인용(송용희, 2005; 이나연, 2018)하는 등의 익명 정보원 남용이 두드러진다.

반면 한국 언론이 역 피라미드 구조를 수입해온 미국의 저널리즘은 기사의 첫 문장에서 육하원칙을 동원해 사건의 전모를 요약하는 사건 중심의 보도에서 분석 중심의 보도로 변모해왔다. 반허스트와 무츠(Barnhurst & Mutz, 1997)는 1894년부터 1994년까지 100년간 미국 3개 신문의 사고, 범죄, 일자리 기사의 변화 패턴을 분석한 결과,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how)’와 ‘왜(why)’가 더 자세하게 설명되면서, 사건의 사회적 맥락이 더 큰 그림(big picture) 속에서 해석되고 기사의 길이 또한 길어지는 현상을 발견했다.

투명성에 관한 미국 저널리즘의 원칙은 엄격하다. 익명 인용에 관하여 AP,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은 자사의 기자들이 교과서로 이용하는 스타일북에 익명 인용이 가능한 경우를 극히 제한하며, 익명인용을 할 경우에도 독자가 인용의 출처를 신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규정하고 있다(Associated Press, 2017; Siegal & Connolly, 2015).

이러한 토양 위에서 발전한 미국의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역 피라미드 구조의 탈피, 투명성의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팩트체크 기사의 서술방식으로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검토한 뒤 마지막 단계에 관정의 이유를 밝히는 역피라미드 서술 뒤집기가 권장된다(Graves, 2016). 팩트체크 저널리즘에서는 반드시 검증해야 할 가

장 중요한 인용이나 인터뷰는 공개기록(on the record)으로 확보되어야 한다.⁶⁾ 취재과정에서 철저히 배격되는 것은 익명인용이다. 폴리팩트는 “익명 출처를 인용해 진실을 폭로할 수는 없다(You can't have an anonymous source debunking a fact)”는 것을 팩트체크의 핵심 수칙으로 강조한다. 또한 미국의 주요 팩트체크 기관들은 검증을 할 때 발언의 당사자로부터 출발하라는 것을 공통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⁷⁾ 발언자가 검증하려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을 것이며, 왜 검증대상이 되는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적 객관주의 관행에 익숙한 팩트체크 언론인들이 기존의 취재 보도 기법과 차이가 있는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규범들을 맞닥뜨리며 어떻게 이를 수용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했다.

연구문제 3.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사실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방법이나 기사 서술 방식에서 기존의 취재 보도 방식과 차이를 보이는가?

4) 기자공동체와 팩트체크

젤리저(Zelizer, 1993)가 갈파했던 것처럼 기자들은 대화를 통해 자신들이 수행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 담론을 통해 토론하고, 고려하고 때로는 지배적인 합의들에 도전하며 새로운 기술이나, 환경, 뉴스수행의 변화 등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비추어볼 때, 언론인들 사이에 새로운 현상으로 등장한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해석공동체(interpretive community)인 기자 사회에서 어떻게 공유되고 평가되는가는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향후 전개과정을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

그레이브스와 나이한, 라이플러(Graves, Nyhan, & Reifler, 2016)는 기자들이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시장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저널리즘의 윤리에 충실함으로써 언론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한 것인지를 2014년 대선 당시 미국 전역의 82개 언론사의 정치담당기자 1689명에 대한 온라인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그 결과 뉴스 이용자가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원한다는 상업적 목적의 메시지보다는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수행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저널리즘 윤리를 강조하는 메시지에 노출됐던 기자들이 더 많이 팩트체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기자사회에서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새로운 수익 창출원의 의미보다는 기자들 자신의 효능감을 높여주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팩트체크 언론인들이 한국 언론계에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탐색일 것이다. 이로부터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했다.

연구문제 4.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한국의 기자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3. 연구방법

팩트체크를 수행하는 언론인들의 사실 인식과 구체적인 사실검증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의 팩트

6) PolitiFact의 Our on the record sourcing

<https://www.politifact.com/truth-o-meter/article/2018/feb/12/principles-truth-o-meter-polifacts-methodology-i/#Our%20sourcing>

7) FactCheck.Org의 Research 규칙 <https://www.factcheck.org/our-process/>

체크 저널리즘 특징을 탐색하고자 하는 이 연구는 방법론으로 심층인터뷰를 채택했다. 질적 연구방법으로서의 인터뷰는 사회적 행위자(social actor)의 경험과 관점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인터뷰의 내러티브를 통해 자기 경험의 맥락(context)과 행위(action), 의도(intentionality)를 구성한다. 충분한 정보를 가진 인터뷰 대상자들은 연구자가 자기 능력만으로는 꿰뚫어 파악할 수 없는 국지적 환경(local setting)의 사회적 삶을 드러낼 수 있고, 연구자는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나지 않는 사회적 실체(social reality)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Lindolf & Taylor, 2002).

언론인들이 공유하는 규범과 가치, 관행, 전략, 상징체계로서의 뉴스 문화(news culture)(Zelizer & Allan, 2010)는 그 구성원인 저널리스트들이 매일의 뉴스 생산과정을 통해 구축하는 사회적 실체다. 팩트체크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저널리즘 양식이 기왕에 구축되어 있으나 동시에 역동적인 뉴스 문화와 어떻게 조응하거나 혹은 균열을 일으키는지는 내부자(insider)인 기자들의 자기 경험에 대한 기술을 통해 포착될 수 있다. 따라서 심층 인터뷰 방법은 기자의 관점에서 한국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특징을 탐색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 인터뷰 대상자 선정 과정

질적 인터뷰의 대상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적 맥락에서 합법적이고 헌신적이며 인정받는 구성원인 동시에 질문자를 대신해 내부자의 관점으로 자신이 속한 특수한 사회적 환경에서 통용되는 규범과 태도, 구조, 과정과 문화를 인터뷰어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Lincoln & Guba, 1985, p.258). 연구자는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한국 사회에서 다수의 언론사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한 것이 2017년 대선 전 후인 것을 감안할 때, 인터뷰 대상자는 최소한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첫째, 언론사 경력이 일정 정도 이상 쌓여, 뉴스룸 내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노동과정 수행에 상대적 자율성을 갖고 있어서 반성적인 관찰이 가능해야 했다. 둘째,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어서, 팩트체크 저널리즘과 일상적인 저널리즘을 비교할 수 있어야 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팩트체크 언론인을 선정하기 위해 주요 일간지, 방송, 통신, 온라인 뉴스 사이트 중 자사의 보도에서 팩트체크 혹은 그와 유사한 명칭의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언론사를 먼저 간추렸다. 해당 코너의 담당자 중 5년 이상의 언론인 경력을 갖고 있으며 1년 이상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지속한 경험이 있는 팩트체크 언론인 10명을 선정해 인터뷰를 요청했다(<표1> 참조).

표1. 인터뷰 대상자

구분	소속매체	직위	나이	부서	경력	팩트체크 경력	전임 부서
A	신문	기자	33	정치부	6년	1년10개월	사회부, 중소기업부 등
B	온라인뉴스	차장	44	팩트체크	20년	2년	경제부, 편집부
C	방송	기자(팀장)	40	디지털 뉴스팀	16년	1년3개월	사회부, 정치부 등
D	통신사	편집위원	57	편집부	32년	1년1개월	사회부 등
E	방송	기자	34	디지털 뉴스팀	8년	1년5개월	스마트뉴스팀, SNS팀
F	온라인뉴스	부장	48	정보미디어	23년	1년1개월	금융, 통신, 컴퓨팅 등
G	신문	차장(팀장)	55	조사팀	30년	1년1개월	전국부, 인터넷뉴스팀

H	방송	기자(팀장)	39	팩트체크	12년	2년1개월	사회부, 정치부 등
I	방송	차장(팀장)	44	탐사보도부	20년	1년8개월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등
J	신문	기자(팀장)	41	정치부	12년	1년1개월	금융부, 경제부 등

2) 자료 수집 및 분석과정

인터뷰는 2018년 8월 10~22일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10개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 10명을 일 대 일 대면을 통해 1시간~1시간 반 인터뷰했다. 인터뷰 관련 연구자들의 제언(Creswell, 2009; Lindolf & Taylor, 2002)을 따라, 응답자들에게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휴가 중인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응답자의 직장 혹은 출입처, 직장과 출입처에서 반경 10분 이내의 장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가 시작되기 전 섭외 단계에서 연구 목적을 설명했고, 분석결과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점을 인터뷰 대상자에게 고지했다. 인터뷰 1~3일 전에 이메일을 통해 공통질문(<표2>참조)을 먼저 보낸 뒤, 대면 인터뷰는 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 질문을 던지거나 인터뷰 대상자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대로 순서를 바꾸는 반(半)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했다. 인터뷰 이후 보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을 통해 답을 얻은 뒤 내용을 보완했다. 인터뷰 내용은 인터뷰 대상자에게 허락을 얻어 모두 녹취했으며 녹취한 내용은 전문 녹취사를 통해 전사(轉寫)했다.

표2. 인터뷰 대상자 공통질문

질문 내용
기자가 다루는 사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팩트체크에서 사실 검증이라고 했을 때 다루는 사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팩트체크를 경험한 뒤 사실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까?
팩트체크가 귀하나 귀하의 회사의 정치적 경향성에 영향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증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불편부당하기 위해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검증 대상자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서로 모순되는 주장들을 확인해 본 뒤 결론을 내립니까?
물적 증거들을 찾습니까?
익명 인용을 자제하니까? 익명 인용을 할 수밖에 없다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팩트체크 기사의 경우 기사쓰기의 방식이 다른니까?
조사과정에서 이용한 자료의 출처를 다 밝힙니까?
팩트체크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한국의 기자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내용의 분석은 반복적인 읽기와 분류를 통해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범주화했다. 연구문제에서 예측하지 못했지만 인터뷰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범주를 놓치지 않도록 인터뷰 과정의 메모와 녹취를 전사와 비교하는 가운데 귀납적으로 분석작업을 진행했다(Corbin & Strauss, 1990). 연구자는 인터뷰 대상자들이 드러낸 개별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누락하지 않으면서도, 팩트체크 언론인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체험과 인식을 걸러낼 수 있도록 통합적인 해석을 하고자 했다.

4. 연구결과

1) 뉴스룸 내부의 역할분담을 통한 이중(二重) 층위의 사실 경영

팩트체크 저널리스트들은 팩트체크가 다루는 사실이 언론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실이지만 현재의

언론이 다루는 사실이 이를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모두가 팩트체크를 한다면 팩트체크가 필요 없을 것이지만”(D)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 단계의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팩트체크에서 다루는 팩트와 일반적인 기자들이 다루는 팩트는 다르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A, B, D, E, H, I) “기존의 취재부서에서 해 온 것은 새로운 내용이 뭐가 있는지, 주로 취재원의 발언에 의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 생길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전한다면, 팩트체크는 과거의 자료나 데이터를 찾아서 발언이나 사실을 검증하는”(A) “후행적”(H)이며 “시시비비를 가리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판단하는”(H, I) 행위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취재할 때 사실이라는 거는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사실이나 발언도 사실의 범주에 넣거든요. 이를테면 사건이 조작될 수도 있고 발언이 거짓일 수도 있는데, 일단 유력한 누군가가 발언을 했다면 그 자체는 사실인 거죠. 팩트체크에서 말하는 사실이라는 거는 설사 그렇게 공공연하게 벌어졌거나 누군가의 말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현상이나 발언이 정확해야 하고 오류나 거짓이 없으며 이론의 여지도 없는 현상이나 발언만을 사실로, 어떻게 보면 먼저 말씀 드린 게 넓은 의미의 사실이라면 더 좁혀진 사실인 거죠. (B)

이중 층위의 사실이 존재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마감 시간’의 압박과 온라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속보를 쏟아내야 하는 부담을 원인으로 꼽았다. “취재현장에서는 속기사처럼 발표되는 내용을 타이핑하기 바쁘다. 그러지 않으면 속보를 댈 수가 없다. 취재 수첩에 내용을 적으며 생각하고 질문해 본 기억이 거의 없다”(A)는 진술은 24시간 마감 체제가 사실 확인의 규율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허무는가를 보여준다. “(기삿거리) 하나 가지고 한 페이지 쓰라고 하면 일단 그 분량에 압도돼 어떻게 하면 몇 시간 안에 한 페이지를 쓸 수 있을까 고민”(A, G)하는 것이 반복되는 일상이다.

늘 지면은 오후 5시 반까지 나와야 되고 데일리한 기사에 매몰돼 있어서 시간은 한계가 있고 오늘이 지나면 뉴스 가치가 없는 경우가 특히 스트레이트 기사는 많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먼저 쓰고 하면 물 먹는 거고. 이러다보니 까 시간은 없고, 확인할 어떤 기자들의 시간적 여유나, 의지도 없는 것 같고...(A)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기자가 똑같이 팩트체크만 할 수는 없고, 누군가는 보도자료를 써야 되고, 누군가는 정치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뉴스를 써야한다”(E, G)는 것이다. 즉 뉴스를 안에서의 역할분담을 통해 층위가 다른 두 개의 사실을 모두 보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단계의 사실 추구 방식이라는 진단이었다. 팩트체크 언론인들이 추구하는 사실은 ‘모든 기자들이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팀이나 전담 기자가 맡아서 해야 하는 일로 인식되고 있었다(D, F, G).

사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팩트체크 언론인들에게 기자가 전달자인가, 아니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갖게 했다. “기존에는 단순히 기자면 중립적 전달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더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됐다고 배웠고”(E) “누군가가 한 얘기가 사실이나 아니냐는 입증을 안 했는데”(D) 팩트체크는 “이미 벌어져 있는 논란 혹은 공개돼 버린 발언 혹은 사실인지 여부가 혼동되는 것들을 검증하는”(H) 작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보도와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전통적인 객관주의 저널리즘 입장에서 본다면 부합하는 내러티브는 아닌 거죠. 돌려 말한다면 그런 식으로 객관적인 저널리즘으로 해왔던 것이 결과적으로 국정농단 사태나 이런 게 초래됐을 때 그동안 언론은 그럼 무엇을 감시하고 있었느냐, 워치독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감시하고 있었느냐, 단순히 형식상의 객관주의에 빠져서 실제적 진실에 대한 검증작업을 또는 견제의 취재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독자 또는 시청자들에게 사실은 사안

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객관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되 객관적이라는 것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했으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한 게 객관적으로 맞느냐를 따져보는 게 객관주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객관주의가 조금 달라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I)

기존의 객관주의와 다른 객관주의가 필요하게 된 것에 대해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언론이 “벌어진 사실들을 그냥 ‘사실’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받아쓰기 저널리즘’을 수행함으로써 언론 수용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C, G, J)이라고 설명했다. “타 언론사들이 보도하는 것조차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진”(G) 총체적인 ‘신뢰의 위기’ 라는 것이다.

팩트체크 언론인들의 언론 신뢰성에 대한 낮은 평가는 언론인이 ‘기레기’로 불리게 된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등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당시를 취재했던 한 팩트체크 언론인은 ‘사실’을 보도했지만, ‘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역설적인 상황이 가져온 혼돈과 사실성 구현의 실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세월호 때 현장에 가 있는 해경국장하고 헬기를 타고 있는 국장이랑 계속 통화를 하면서 기사를 썼어요. “지금 거기 배 몇 대 있어요? 소방헬기는 몇 대 갔어요? 구조는 몇 명 됐어요?” 이것을 계속 물어봤어요.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기사를 정말 백 개 넘게 생방송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며칠 뒤에 생각해 보니까 “해경들 배에 들어갔어요? 몇 명 들어갔어요? 잠수했어요?”라는 질문을 안 한 거예요. “나는 왜 그걸 물어보지 않았지?”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더라고요. (중략) 근데 제가 그 때 쓴 게, 해경 구명정이 몇 척 도착했고, 해경이 몇 명 가 있고, 이게 팩트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놓치고 있었던 건 제가 물어보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 어떤 것도 팩트가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잘못된 거죠. 저는 당연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연하기를 의심을 안 한 거예요.(C)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신뢰의 위기’와 더불어 팩트체크 저널리즘 출현의 중요한 계기로 온라인 환경을 꼽았다. 온라인 공간에서 정보가 양산되며 주장이 사실처럼 전달되는 상황(E, F)에서 무엇이 사실인지를 가려주는 정보 서비스의 출현을 사회적으로 요구하게 된 것이 팩트체크 저널리즘 출현의 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D).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온라인 환경에서 뉴스 이외의 콘텐츠들과 경쟁하게 된 기자들이 자신이 쓰고 제작한 기사가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전달되고 기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택하는 기술적인 방편이기도 했다. “속보’ ‘특종’ 등의 타이틀의 중요도가 많이 희석되어 주목도가 없지만, 팩트체크에는 신뢰성이 남아있다”(E)는 것이다. “온라인에 가면 1500개, 2000개의 기사가 있는데 ‘팩트체크’ 기사는 문패 때문에 오래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 문패없이 지나가 버린 기사는 잊혀지는데, 오래 전에 쓴 것이더라도 팩트체크 기사 쓴 것은 (온라인 공간에서) 찾기가 쉽거든요.”(D)

경력이 오랜 기자들일수록 팩트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취재원들뿐만이 아니라 보도의 사실성에 대해서도 신뢰를 많이 잃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기자 경력 32년인 D는 “무슨 다른 인터뷰라면 모르겠는데,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대통령 선거 토론회 자리에서 검증 안 된 사실이 나온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고, 기자 경력 30년인 G는 “과거에는 언론사가 보도하는 건 기자들이 다 사실 확인을 거쳐서 보도가 되는 건 줄 알고, 인용도 했는데, 이제는 인용하고 참고하는 것도 다 신뢰할 수 없다”고 팩트체크를 통해 갖게 된 언론 보도에 대한 의구심을 피력했다.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자신들이 검증과정을 통해 밝혀낸 사실이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기보다는 잠정적인 진실이라는 한계를 인정했다. 즉 팩트체크 결과를 판정하는 순간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동원해서 찾아낸 제한적인 진실이라는 것이다. “저 밑에 진실이 따로 있는데 그걸 확인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증해서 제시한) 팩트가 진실(truth)이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F)라고 회의론을 밝히거나 “팩트체크를 하면서 사실은 오로지 하나만 존재할 수 없다. 보는 각도나 방식, 아니면 의지에 따라서 그 사실은 다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C, H).

심층인터뷰에 응한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자신들이 언론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지만, 마감시간의 압박, 인력난 등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검증 작업을 뉴스룸 안에서의 역할 분담을 통해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한 사실검증은 취재원이 말하는 대로, 혹은 발표자료에 쓰여진 대로 받아쓰는 기존의 객관주의와는 달리 새로운 객관주의라고 인식하면서 사실에 이중 층위가 있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자신들이 밝히는 사실은 상식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며, 가변적일 수 있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사실검증이 필요한 배경에는 수용자들이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위기와 함께 기사가 수많은 정보 속에 묻혀버리고 마는 온라인 환경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도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2) 검증대상 선택 편향의 불가피성

팩트체크 언론인들 사이에서 검증 대상의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자체 기준을 명시한 미국의 팩트체크 기관들의 경우에도 확인되었다(Marietta, Barker, & Bowser, 2015; Lim, 2018). 심층 인터뷰 대상인 10명의 팩트체크 언론인들이 속한 언론사 중 명시적으로 검증대상 선정에 일관된 기준을 갖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매일 비슷한 정보원(source)을 검색하는 곳도 있었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포털 댓글 등 온라인 공간에서 화제가 되거나 잘못 알려진 사실, 허위정보(disinformation)를 찾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규칙적인 일과를 따라가며 검증대상을 찾는 경우는 “각 당의 논평, 홈페이지, 각 당의 아침회의, 국무회의, 선출직 공무원들과 국회의원 주요 시도지사들의 공개 발언, 페이스북 페이지, 트위터 계정”(A, H) 등을 살펴보았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화제를 따라가는 경우는 검증의 첫 단계부터 “누리꾼들은 이런 점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B, C)등의 서술을 통해 검증대상 선정 기준의 책임을 수용자들에게 맞추고 있었다. “아무리 팩트체크할 만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관심 없는 사안이면 팩트체크하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회자되느냐, 화제성이나 파급력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B)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의도를 했건 안 했건 그 사람의 말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나 이슈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의 말을 검증”(A, E)하는 경우에도, 발언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검증을 하는 팩트체크 언론인의 주관적인 뉴스 가치(news value)가 선정 기준이 되었다.

검증대상의 선정이 자의적이라고 해서 팩트체크 언론인들이 대상의 선정을 쉽게 여기지는 않았다. 검증대상이 결정되고 나면 그에 따라 검증 방식을 설정하고 그 방식에 맞게 취재해서 보도하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H, I), 대통령 선거와 같은 이벤트가 있지 않은 경우 검증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증의 기준 시점, 검증의 변인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 검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화제성이 강한 검증 대상이지만 쉽게 검증에 나서지 못하거나, 검증결과에 대한 해석의 폭을 넓히지 않도록 검증 대상을 최대한 세분화하기도 했다(F, H).

검증대상 선정의 자의성 문제는 소속 언론사나 팩트체크 언론인 개인의 편향이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심층 인터뷰 대상자는 ‘소속 언론사나 기자 당사자의 정치적 경향성이 팩트체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소속 언론사나 기자 당사자의 정치적 경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A, B, C, F, E, H, I, J)고 답했다. “팩트체크는 태생적으로 정파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각 언론사의 판단이 녹아들어 있고, 그 편향성이나 정파성, 당파성은 결국 무엇을 검증할 것이냐, 검증대상 선정에서 나온다고 본다”(H)는 것이다. 기자 개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경향성뿐만 아니라 자유경제에 대한 철학, 노동에 대한 가치관, 남녀 차별에 대한 인식 등”(C)이 모두 검증 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

친다고 평가했다. 자신의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한 팩트체크 언론인은 이러한 편향성 때문에 팩트체크가 결국 수용자들의 확증편향만 강화할 것이라는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팩트체크가) 진영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매체들이 지향하는 정치적 성향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이게 팩트가 체크되는 거냐, 독자한테 그러면 명확하게 이런 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독자들이 봤을 때 (언론사에 따라) 상반된 팩트체크가 나왔을 때 결국 자기가 읽고자 하는 걸 읽고 원하는 걸 취하게 되죠. (F)

편향을 피하기 위해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서 절차적 정당성 차원에서라도 기계적 균형을 맞춰줘야 하지 않나”(C)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팩트체크의 원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견해(A, E)도 있었다.

특정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허위 발언,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수라는 이유만으로 보수 진영에서 이 사람의 발언을 체크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반대에 있던 상대 후보는 그런 발언을 전혀 안 했어요. 그걸 기계적 중립을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 발언도 팩트체크 해야되냐?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이런 점에서 어쩔 수 없이 기계적 중립, 양적 중립은 지켜질 수 없다는 거죠.(E)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검증대상 선정과 검증 과정을 분리해서, 대상 선정에는 편향이 나타날 수 있지만, 검증과정이나 판정에는 이러한 편향성이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인식했다. 주장이나 의견이 아닌 근거 자료를 갖고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A, B, E, I), 검증결과는 객관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검증대상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언론사들이 교차검증을 했을 때는 판정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다수의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똑같은 팩트라도 검증과정에서 세부적인 조건이 다소 차이나면 판정결과가 충분히 다를 수 있다”(D)거나 “결과가 다를 경우 타사가 검증한 기사의 근거를 따져보고 자사의 검증과정을 다시 한 번 돌아보지만 자사 기사 취재가 더 명확하다고 판단할 때는 타사의 교차 검증 결과와 달라도 그리 신경쓰지 않는다”(A, C, I)고 답했다. 그러나 동일한 검증대상에 대해 다른 판정결과가 나오는 것 자체가 “팩트체크를 (사실이 아닌) 가치판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F)이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3) 한국형 객관주의 형식을 깨는 시도

(1) 역피라미드 형식 탈피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기사들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역피라미드의 구조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팩트체크 저널리즘에서도 역피라미드 구조를 뒤집는 서술 양식(Graves, 2016)이 권고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팩트체크 저널리즘 기사들은 대개 기-승-전-결의 보고서 형식으로 전개되고, 장문(long journalism)의 형태를 띤다고 인터뷰 대상자 전원이 답했다(A-J). 방송 뉴스의 경우 “평균 1분 30초, 1분40초에 한 아이템을 담는다면, 팩트체크의 경우 4분 넘게 방송하는 경우도 있다.”(H, I). 형식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갖는 것은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선진적으로 발전시켜온 미국의 사례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기보다는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적(heuristic)’으로 진화해온 것으로 보인다.

“일반 기사는 기-전-승 이렇게 뒤집어도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기-승-전으로 해줘야 물 흐르듯이 흘러가서 다 읽어봐야 끝에 가서 이제 뭐가 내용이 나오는”(D) 구조라는 것이다. 특정 사실을 검증하게 되면 순차

적으로 기-승-전-결의 단계로 가야하는데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기-승-전을 설명하려면 기사가 매끄럽지 않다는 설명이었다(B, E).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이러한 구조 때문에 스트레이트 기사라면 앞부분을 읽고 흥미를 잃었을 경우, 기사 읽기를 포기하는 데 반해 팩트체크의 경우 관심이 있으면 끝까지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B, D, J).

역피라미드 방식을 뒤집어 오히려 피라미드 방식으로 기사를 전개하는 이유는 수용자들에게 검증하려는 대상과 검증과정의 맥락(context)을 부여하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A, B, C, H, I, J). “사람들이 목 말라 있는 건 하루 이틀 빠른 특종 뉴스가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지를 해설해주는 기사”(A)라는 것이다. 언론사들이 24시간 온라인 뉴스 생산 체제 하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보도 자료를 받아쓰며 끊임없이 새로운 기사를 게시해 수용자들의 클릭을 유발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분절적 기사들이 수용자들에게 ‘맥락’을 제공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 팩트체크 언론인들의 진단이었다.

일반인들은 가끔씩 기사를 보잖아요. 근데 팩트체크 기사는 팩트를 체크해주려면 일단 이 팩트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좀 총정리같은 느낌의 기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어서 설명해주는 총정리. 죽집게 강의같은 느낌인데 그런 죽집게 강의류의 팩트체크가 제일 인기도 좋았고, 사람들한테 읽히기도 잘 읽히고... 그냥 앞뒤 자르고 “자 오늘은 이랬어” 이런 식의 수많은 기사가 아니라 “자 어제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에 온 거야” 그런 기사인 거죠.(C)

수용자에게 맥락을 제시하고 해설하는 기사가 되기 위해서 “앵커가 시청자들을 대신해 질문하고, 기자가 여기에 답하는 만담의 기사화”(I) 형식을 시도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을 좇아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방식의 기사형식을 시도하거나”(C),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하고 연성화된 기사”(J)를 쓰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팩트체크를 하는 언론인들이 발견한 것은 첫 머리에 중요한 내용을 제시하는 역피라미드 방식이 아니더라도 수용자들이 긴 분량을 읽는 수고를 감수한다는 것이다.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수용자들이 아무리 짧은 기사라도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읽지 않고, 긴 기사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분량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평가했다(B, J).

20만, 30만 클릭 되는 기사들은 스트레이트 기사는 별로 없고, 스토리텔링 기사들이 많아요. 사람들도 딱 봤을 때 딱딱한 기사, 아무래도 스트레이트 기사보다는 소프트한 박스 기사를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면에서 PC, 모바일로 가는 시대에서 사람들의 요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스크롤 압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거 자기가 읽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J)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역피라미드 구조에서 탈피해 시도되는 팩트체크 기사가 독자들에게 맥락을 제시하며,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친절한 기사”(F)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2) 물적 근거의 동원과 투명성 제고

역피라미드 구조 탈피와 더불어 팩트체크 언론인들이 강조하는 것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일 위험한 게 사람들의 말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A) 통계, 논문, 판결문 등의 문서화된 자료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A-J). “팩트체크라고 그러면 일종의 부담감이라고 해야 하나, 그냥 기사 쓸 때보다는 뭔가 더 구체적인 걸 그 안에 넣으려고 노력”(D)하게 되고 “최소한 2, 3개 이상의 근거자료를 명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결과를 내며,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의 근거를 먼저 받아야 된다”(C)는 나름의 규칙들을 적용하고 있었다. 팩트체크 수행 경험이 2년이 넘어 인터뷰 대상자 중 팩트체크 저널리즘 경력이 가장 오랜 H는

“통계의 원자료(raw material)가 아닌 해석을 가미해 내놓은 자료를 믿지 않으며 정부의 입장을 담은 형식의 정부기관 자료도 잘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문서 등의 물적 증거를 동원하는 것에 대해 팩트체크 언론인들이 무게를 두는 이유는 코멘트보다 좀 더 객관적인 자료라는 데만 있지 않았다. 자신들의 검증과정을 독자나 동료 기자들에게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팩트체크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근거라고 해석하고 있었다. 특히 근거가 된 출처를 원자료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A, B, G). 지면이나 방송시간의 제한 때문에 원 자료를 다 소개할 수 없다면, 온라인 기사를 통해서라도 원 자료의 링크를 걸거나 파일을 첨부한다면 독자들에게 “자신있다, 내가 다 검증했다, 공개한다”(G)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자료를 취재방향에 맞게 왜곡해서 인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쉽게 말하면 가지치기잖아요. 똑같은 화자의 말을, 어떤 논문을, 인용하더라도 자기들한테 결론에 유리한 것만 갖다 쓰고 쉽게 말하면 취사선택을 한단 말이죠. (중략) 단순히 어떤 자료를 썼느냐 어떤 발언을 인용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문을 왜곡없이 전달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 출처를 인용한다는 것은 나는 적어도 이거를 가져다 썼는데 왜곡됨 없이 가져왔다. 그러니까 그게 의심이 되면 독자들도 원문을 보게 하는 거, 그렇게 되면 단순히 어떤 출처를 밝히나, 안 밝히나 문제가 아니라 기사를 쓴 사람의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내가 ‘기’이라는 자료를 인용하고 ‘가’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했을 경우에 나는 그 원문에 있어서 왜곡없이 이거를 내 기사에 인용하고 있다는 어떤 증표라고 생각합니다.(B)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모든 팩트체크 언론인들이 원 출처의 공개를 지키는 것은 아니었다. 팩트체크한 기사를 데스크해서 최종적으로 온라인사이트에 올리는 역할을 맡은 G는 “한국은행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게 틀렸다고 했다면,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다 스캔해서 올리든가 해야하는데 저도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신문에 나온 그대로 온라인판에 올리고 있다”고 한계를 밝혔다.

(3) 검증대상자로부터 시작하는 사실 확인

미국의 팩트체크 저널리즘 기관은 공통적으로 사실검증의 1차 책임을 검증대상이 되는 발언을 한 당사자에게 지우고 있다⁸⁾. 즉 발언의 사실성 여부와 그에 대한 증거의 확인을 당사자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재 기법은 기사의 방향을 정해놓고 일정 정도 취재를 끝낸 뒤 이에 대한 당사자 반응을 듣는 방식의 일반적인 취재 기법과는 차이가 있다.

짧은 역사를 지닌 한국의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취재원과의 다툼, 즉 검증내용에 대한 항의를 받거나 언론중재위에 제소가 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며(C, H), 당사자로부터 출발하는 취재 기법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재를 다 끝내놓고 마지막에 면피성으로 반응을 물어보는 것과는 달리 시작할 때부터 (다툼이 있는 양자가 있을 경우) 양자의 얘기를 다 물어보는” (C) 것이다.

언론중재위 건이 한 1년 전 쯤 많이 불거져서, 아 이리저 말고 차라리 그럼 취지까지 다 들어버리자, 처음에 듣고 시작하자. 왜 열심히 팩트체크를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이런 일종의 수모를 당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명한 거는 그럴 필요가 없고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직접 전화를 합니다. 오늘 팩트체크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당신이 발언을 하며 이런이런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는 실제로 어떤 증명된 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어디서 본 것인지, 어디서 들은 것인지를 미리 듣습니다.(H)

8) 일례로 팩트체크닷오르그는 검증 대상 조사의 첫 단계에서 검증 대상이 된 인물이나 단체에 문제가 된 발언이나 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이 해명이 불충분할 경우, 독자적인 검증에 들어간다. (<https://www.factcheck.org/our-process/>)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의견을 초기에 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장에 대한 검증을 하려면 출발점은 주장하는 사람에 근거”(I)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심플하다”(F)는 취재의 경제성에 대한 고려도 있었다.

당사자의 의견을 검증 초기에 듣는 이유는 법적 분쟁의 회피, 취재의 경제적 편의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당사자의 주장이 맞는지 다른 언론보도를 확인 취재하는 의미도 있다. 이는 다른 언론의 선행보도를 독자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취재했을 때 잘못된 정보로 팩트체크를 할 수 있다는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대부분의 정치적 발언은 대개 언론을 거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 거치게 되면 왜곡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는 왜곡된 내용이 알려지게 돼요. 뭔가 그런 왜곡된 요소를 좀 제거하고, 순수하게 당사자의 주장 그것만 갖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바이어스 되는 부분들을 쳐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당사자 접촉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B)

(4) 익명 인용 자체의 한계

기사의 인용 출처를 명시하는 것은 누구든지 원하면 기사에 보도된 사실이 맞는지 그 출처에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하는 것이다(Duffy & Freeman, 2011). 즉 인용출처의 명기는 진실확인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타자에 의한 교차검증을 가능하게 한다(Boeyink, 1990). 그러나 한국 언론의 경우 익명 정보원은 “기사의 작성과 이데올로기적 성향, 그리고 신문사의 입장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언론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신들의 성향에 따른 편향성”(한동섭·유승현, 703쪽)을 드러내왔다. 따라서 보도에서 익명 인용이 남발될 경우, 진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익명 인용을 통해 편향성을 교묘히 숨기는 편파보도가 이뤄질 수 있다.

미국의 팩트체크 저널리즘 기관인 폴리터팩트는 “익명 출처를 인용해 진실을 폭로할 수는 없다(You can't have an anonymous source debunking a fact)”를 수칙으로 제시하며, 팩트체크 기사에서의 익명 인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내의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익명 인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익명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고 답해 익명 인용의 규범이 상대적으로 느슨함을 보여주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서 익명 인용을 할 수 없다”(I) “팩트체크라고 해 놓고 익명을 사용하면 독자들에게 대한 배신이다”(D) “기사를 흘려서 여론의 덕을 보는 경우가 제법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명을 쓰는 게 기사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G)라고 기명 원칙을 단정적으로 지지한 팩트체크 언론인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포털로 뉴스소비를 하는 환경에서 포털에 뜬 기사 속의 이름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회자되는 문제 때문에 익명으로 처리해 달라는 요구(E)도 있고,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부서나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공식 발언한 것에 대해 개인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익명을 요구하는 경우 타당한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었다(B). 취재원이 익명 인용을 요구하는 데는 팩트체크가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을 경우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은 지양하는 게 맞다고 보는 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첫 번째, 전문가들이 팩트체크 기사로 나갈 때, 자기가 말하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거나 학문적 사실인 건 분명하다, 다만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팩트체크가 정파성이 있거나 정파적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좀 아직까지는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공공재라는 성격보다는...실무자 그룹은 제일 잘 아는 게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정부기관의 담당자 실국장 과장 등. 본인 이름이 노출되면 나중에 정권이 바뀌거나 위치가 바뀌었을 때 그런 근거들(팩트체크에 기명 인용되었다는 것)이 본인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들이 깔려 있어요.(H)

즉 팩트체크에서의 기명 인용 원칙은 한국의 팩트체크 저널리즘에서는 기존의 저널리즘 관행에서 크게 변화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팩트체크로 인한 기자공동체 변화: 건강한 긴장 vs. 정파 간 갈등 심화

한국사회에서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수행하는 기자들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더 많은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필요하다(백미숙, 2017)는 긍정론과 더불어 ‘모든 취재보도가 팩트체크인데 왜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필요한가’라는 회의론이 공존한다. 이런 상황에서 심층 인터뷰에 응한 팩트체크 언론인들 다수는 현재의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기자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A, B, C, D, E, H, I)

먼저 팩트체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들은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한국 기자 사회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정치인의 잘못된 발언이 1차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이를 질러 쓰고, 앞서 가고, 성급하게 받아서 오보를 양산한 데는 언론도 공범 노릇을 한 측면(A, B, H)이 있다고 진술했다. 지금까지는 일종의 “동업자 의식”(B)으로 서로의 오보에 대해서도 눈을 감아왔다면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경우는 잘못된 뉴스가 계속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검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치인이 사실이 아닌 발언을 했을 때 그 근거가 언론보도를 보고 한 것이라면, 그 보도를 검증없이 이용해서 잘못된 주장이 확산된 것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주는 게 팩트체크(H)라고 보았다.

(팩트체크로 인해) 약간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 비단 사회적 지도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들도 좀 비슷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아젠다를 만들어서 던지면 여론을 몰아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던 기자들이 그것에 허점이 있을 경우 동료들, 같은 회사에 소속된 동료들을 포함해, 크로스체크를 하는 동료들에 의해서 검증이 되어서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지금보다 더 발언 주체에 대해 비판적인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I)

그러나 미디어비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견제가 언론사들 간에 골을 깊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금까지 진보와 보수가 각자의 경향성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공존해 왔는데, “서로를 건드리다보면 언론사가 서로 상대방의 논조를 비평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언론의 전체적인 신뢰도를 오히려 높이지 않고 떨어뜨릴 수도 있겠다”(H)는 우려인 것이다.

심층 인터뷰 대상자들은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상업적인 성공 가능성’과 ‘인력난’ ‘부서간 장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꼽았다. 별도의 팩트체크 팀이 있어서 상시적으로 기사 생산을 담당하지 않는 한 팩트체크를 지속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별도 팀을 지속하려면 “언론사도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 부분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J)한다는 것이다.

한 달에 한 건이든, 일주일에 다섯 건을 쓰는 팩트체크랑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 사람이 생산해내는 기사의 질과 양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저널리즘 영역에서 판단하고 넘어가야 될 몫을 지금은 사실 그런 부분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죠. 경영과 분리될 수 없는 언론환경이기 때문에.(E)

여전히 퀄리티 보도는 ‘특종’이나 ‘단독’기사라고 보는 상황에서(G), 투여되는 시간과 인력에 비추어볼 때 팩트체크 기사의 생산성이 높지 않은데 과연 각 언론사들이 이를 감내할 것인가가 팩트체크 지속 여부를 가름할 것이라고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전망했다.

5. 결론 및 논의

한국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특징을 팩트체크 언론인들의 인식을 통해 탐색해 본 이 논문의 결과에서 첫 번째로 주목되는 점은 사실을 추구하는 한국 언론계의 관행이 자기모순적이라는 것이다.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실이, 저널리즘이 본연의 임무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사실이지만 실제 뉴스 제작 현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추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진술했다. 이는 한국의 언론인들이 ‘사실을 정확히 취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도 실행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결과(남재일·이강형, 2017)와 일치하는 것이다.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화자의 발언이나 발생 사건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실’의 층위와 화자의 발언이나 발생한 사실의 사실성을 검증하는 ‘사실’의 층위를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기자들이 전자의 ‘사실’을 추구하는 가운데, 팩트체크를 담당하게 된 소수의 팀 혹은 기자 개인은 후자의 ‘사실’을 추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뉴스룸 운영의 관점에서 보자면, 둘로 분리될 수 없는 ‘사실’이 편의적으로 분리되어 팩트체크 언론인에게는 사실 ‘검증’의 임무가 출입처 취재처럼 부과되고, 대부분의 기자들은 사실을 ‘받아쓰기’하는 관행을 유지함으로써 기사를 양산하면서도 빈약한 사실 추구의 틈을 메우는 분할 전략이 이중 층위의 사실 운영을 통해 수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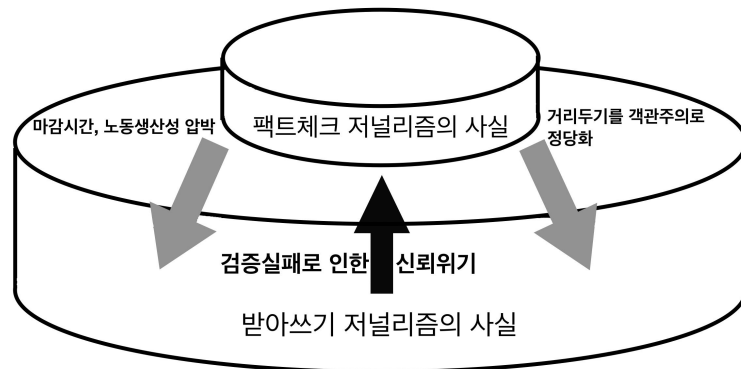


그림 1. 팩트체크를 통한 뉴스룸의 이중 층위의 사실 경영

사실을 정확히 취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도 사실 추구를 잘 하지 못하는 모순이 빚어지는 첫 번째 원인은 뉴스 생산 환경에 있었다. 온라인 중심의 24시간 뉴스 생산 구조에서는 계속해서 파편화된 기사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주어지는 사실을 정확히 받아쓰는 것 이외에 주어진 사실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객관성에 관한 기자들 자신의 태도에 있었다. ‘사실이 스스로 말하게 한다(Facts speak for themselves)’는 태도로 자신이 다뤄야 하는 사건이나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둔(detached) 채 자신의 객관성을 정당화하려는 전술적 의례(strategic ritual)(Tuchman, 1972)가 취재 보도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객관성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실을 정확히 취재한다는 것은 기사 텍스트의 정확성만을 중시하는 ‘형식적 사실주의’ (남재일, 2008)에 그치게 되며, 진실성과 공정성, 사실의 맥락적 의미를 살피는 “종합적 진실(whole truth)” (이민웅, 2002, 45쪽)의 성취는 어려워진다. 팩트체크 언론인들이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는 반성을 하게 된 계기로 언급한 사건들이 세월호 보도나 국정 농단의 사태에 이르기까지 언론이 사실 검증을 소홀히 한 점인 것에 비추어볼 때, 말하여진 사실은 보도하되 말하여진 사실 이면의 사실까지를 검증하지 못하는 사실성 추구의 실패는 언론 불신이 초래된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 두 번째 주목할 점은 팩트체크 언론인들이 ‘발견적(heuristic)’ 과정을 거치며, 기존의 뉴스 생산 관행과는 다른 관행들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역피라미드 방식의 기사쓰기를 지양하면서 기승전결이 있는 기사쓰기를 추구하고 있었다. 이는 수용자들에게 사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맥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팩트체크의 성격 상 드러난 사건이나 발언만을 과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는 수용자들의 이해를 이끌어 내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맥락을 제공하기 위한 해설형 기사쓰기가 자연스럽게 시도된다는 것은 팩트체크가 해석적 전환(Graves, 2016)의 흐름에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취재원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도 무게를 두고 있었다. 먼저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물적 근거의 동원을 팩트체크의 중요한 절차로 간주하고 있었다. 취재원의 코멘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 논문, 법원 판례 등이 사실성을 단단하게 지지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근거들을 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밝힘으로써, 취재기자와 취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취재원의 투명 공개는 기사의 프레임에 따라 증거를 ‘가지치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용자들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고, 이를 통해 기자가 자신이 쓴 기사의 불편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투명성에 대한 인식은 한국의 언론에서 투명성이 잘 시도되지 않는 ‘낮선’ 규범이었던 것에 비춰볼 때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취재의 마지막 단계에서 반론 확보 차 검증의 대상이 된 발언자에게 사실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취재의 첫 단계에서 발언자를 접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미국의 팩트체크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검증 대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규칙으로 통하는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취재원이 제기하는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등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습득된 결과로 보인다. 즉 검증 초기에 취재원의 반론을 받음으로써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등의 문제를 사전에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필요에 따라 정보를 가지치기하는” (남재일, 2008, 256쪽) 방식으로 취재원의 발언이나 정보를 선택하는 취재방식에 비해 열린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받아쓰기 저널리즘과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보이는 관행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표3>과 같다.

표3. 받아쓰기 저널리즘 vs. 팩트체크 저널리즘 관행

받아쓰기 저널리즘	팩트체크 저널리즘
발생 중심의 파편적 사실 제공	맥락이 있는 해설 제공
역 피라미드 기사구조	기승전결의 구조
화자의 발언 그 자체를 사실로 간주	물적 증거 동원해 화자 발언의 사실성 검증
취재원 투명성에 대한 인식 낮음	취재원의 투명 공개 중요성에 대한 인식 높음
시의성 ↑	시의성 ↓
노동생산성 ↑	노동생산성 ↓
신뢰도 ↓	신뢰도 ↑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인 검증 대상 선택의 편향성에 대해서 국내의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개인이나 소속 언론사의 편향성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편향성 때문에 결국 사실을 검증한다기보다는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라는 회의론을 제기하는 팩트체크 언론인도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이러한 편향성이 검증의 과정이나 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는 편향성이 영향을 미치지만 검증 과정에서는 증거에 기초해 판단하는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인식이었다. 정치적으로 극화된 현실에서 검증대상 선정을 둘러싼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기계적인 증립을 지키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그러한 개입이 오히려 팩트체크의 원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국내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검증 대상 선택에서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그 기준이 명시적이지 않은 것이었다. 일부 언론사는 일상적으로 정당의 홈페이지, 아침 회의 등 동일한 자료를 검토하며 검증할 대상을 걸러 내지만 다수의 언론사들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화제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검증 대상을 선정하고 있었다.

검증대상 선정의 자의성은 팩트체크 저널리즘 영역을 개척한 미국의 팩트체크 언론인들도 직면하고 있는 비판이지만 미국의 팩트체크 기관들은 명시적으로 무엇을 팩트체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공개하고 있다⁹⁾. 각 기관마다 명시적인 원칙에 대한 서술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공통적인 것은 의견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며 검증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verifiable)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장이 없는 사실, 사실이 없는 주장, 특정한 근거 사실에 기초한 주장 등 복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과 주장 사이의 맥락성(contextuality)을 읽어내어 검증 대상을 판별해내는 것(마동훈·오택섭·김선혁, 2013)이 국내의 팩트체크 언론인들에게 부여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현재의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언론 상호간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낳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정파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었다. 언론의 오보도 잘못된 사실이 확산되는 데 중요한 유통경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를 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지금까지의 ‘동업자 의식’을 넘어서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디어 비평 성격의 이러한 상호 검증이 경향성이 다른 언론 간에 갈등의 골을 깊게 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었다.

팩트체크 언론인들의 사실에 대한 인식과 사실 검증 과정에 대한 경험의 술회는 한국 저널리즘의 맹점을 역으로 비추어 주는 것이었다.

온라인 환경에서 끊임없이 사실을 양산하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한 검증을 할 시간이 없다는 언론 현장의 상황은 사실성의 추구라는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기초가 한국 언론에서 부실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언론인들도 자각하고 있는 사실성 추구의 실패이며, 언론에 대한 수용자들의 극단적인 신뢰 부재를 낳는 원인이기도 하다. 부족한 인력과 시간을 이유로 뉴스룸 안에서 일부 팩트체크 언론인들이 본래 모든 언론인들이 했어야 할 사실 검증을 떠맡아 상대적으로 시간에 덜 쫓기며 검증 결과를 내놓고 있다. 팩트체크 언론인들의 경험이 뉴스룸 전반의 사실을 다루는 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사건 중심보도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장르로 취급될지에 따라서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한국의 저널리즘 관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는 달라질 것이다.

팩트체크 언론인들이 검증과정에서 동원하는 방법과 기사의 기술 형태는 역피라미드 구조의 한계, 투명성 부족의 문제들을 보완해 기사 품질을 높여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역피라미드를 뒤집는 서술방식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맥락을 제시하는 한편 기사의 리드에서 기사의 방향성을 규정해 버리는 폐쇄된 구조를 일정 정도 극복하고 있었다. 취재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들을 공개함으로써 취재 과정의 적절성을 수용자들에게 확인받는 한편 이를 통해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의욕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서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한국형 객관주의 관행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파편화된 형식화를 극복할 수

9) 미국의 3대 팩트체크 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 팩트체크닷오그는 검증대상을 선정할 때 공화당과 민주당의 자료를 검토하는 데 동일한 시간을 배분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폴리티팩트는 검증이 가능한 사실인지, 오도될 가능성이 높은지, 중요한지, 타인에 의해 확산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지, 보통 사람이 들었을 때 사실인지 의문을 품을만한 사안인지를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의 팩트체커는 비 당파성을 견지하면서 좌든 우든 가리지 않고 부정확한 발언을 한 것에 주목하지만, 백악관과 의회가 모두 한 당에 의해 지배되고 있을 경우 인위적인 균형을 꾀하지 않고 권력이 집중된 쪽을 팩트체크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최근 한국의 팩트체크 저널리즘 흐름은 사실 보도가 본연의 임무임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언론 현장에서 사실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타협책으로서 뉴스룸 안에서의 역할 분담을 통해 팩트체크 언론인들에게 이를 부과하는 질충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현재의 뉴스 생산 환경에서는 '받아쓰기 저널리즘'이라고 불리는 사건 중심 사실 추구하고 자신들이 수행하는 사실 추구가 이중적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인터뷰 결과, 도입 단계로 평가할 수 있는 한국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근본적인 한계는 팩트체크 언론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 언론의 사실성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시도인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지속될지 여부는 경영의 관점에서 판단되기 때문이다. 사건 중심의 기사쓰기보다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드는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유지할지는 뉴스룸 내부의 기사 품질 제고에 관한 판단이 아닌 경영상의 단기적인 손익 판단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게 인터뷰에 응한 팩트체크 언론인들의 공통적인 답변이었다.

한국의 팩트체크 저널리즘 현황을 팩트체크 언론인들의 사실 인식과 사실 검증과정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탐색하고자 한 이 연구는 그 방법론상의 특성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심층인터뷰가 연구자로서는 꿰뚫어 파악할 수 없는 국지적 환경(local setting), 즉 뉴스룸의 사회적 삶을 드러내는 적절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대상자들에 의해 재구성된 사회적 실체인 이상 인터뷰 대상자들이 과장하거나 축소한 사실, 의식의 표면에 떠올리지 못해 누락한 사실에 대한 파악은 어렵다. 이 인터뷰에서 확인된 팩트체크 언론인들의 인식이 실제로 그들이 생산한 기사와의 교차확인을 통해 그 실행 여부가 검증되어야 할 이유다. 따라서 후속작업으로 팩트체크 기사의 내용분석 등이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또 하나의 한계점은 팩트체크 언론인이 아닌 뉴스룸의 다른 구성원들이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경험해 보지 않은 다른 기자들이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지, 팩트체크 언론인들이 구분하는 것처럼 사실에 이중 층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팩트체크 언론인들이 구사하는 역 피라미드 구조 탈피, 취재원의 투명한 공개 등이 일상적인 기사 생산 환경에서 가능하며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등을 탐색해보는 것은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둘러싼 한국 언론의 전반적인 역학 관계를 조망하는 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도입 단계에 있는 국내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전반적인 실행 양상을 밝히고, 해외의 선행 사례에서 노출됐던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의의와 논쟁점이 국내에서는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의 촉매 역할을 한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참고문헌

- 김경모 신의경 (2013). 저널리즘의 환경 변화와 전문직주의 현실. <언론과학연구>, 13권 2호, 41-84.
- 김동윤 김성해·유용민 (2013). 의견지면을 통해 본 한국 신문의 정파성 지형. <언론과학연구>, 13권 3호, 75-122.
- 김선호 김위근 (2017). 팩트체크를 체크한다. <미디어이슈> 3권 7호. 서울: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선호 백영민 (2018). 19 대 대선 기간 후보자 간 의혹제기에 대한 팩트체크 뉴스의 설득효과. <언론정보연구>, 55권 1호, 161-194.
- 남재일 (2008). 한국 객관주의 관행의 문화적 특수성: 경찰기자 취재관행의 구조적 성격. <언론과학연구>, 8권 3호, 233-270.
- 남재일 이강형 (2017). 좋은 저널리즘 구성 요소에 대한 기자 인식 변화 추이. <언론과학연구>, 17권 2호,

82-128.

- 마동훈 오택섭 김선혁 (2013). <저널리즘 공공성 실현을 위한 한국형 팩트체크 모델 연구>. 서울:한국언론진흥재단
- 매일경제신문 (2017, 3, 31). 언론사 팩트체크 서비스, 저널리즘 자존심 걸고 가짜뉴스 가려야.
URL:<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7&no=217588>
- 문용필 (2017,1,26). ‘가성비’ 떨어지는 팩트체크의 하루. <더피알뉴스>
URL:<http://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16>
- 박재영 (2006). 뉴스 평가지수 개발을 위한 국내 신문 1면 머리기사 분석. 김영옥 외. <한국의 뉴스미디어 2006> (147-220쪽). 서울: 한국언론재단
- 박재영 (2013). 기사의 품질. 박재영 이재경·김세은·심석태·남시욱(저). <한국 언론의 품격> (19-103쪽). 파주: 나남
- 박재영 이완수 (2008). 역피라미드 구조의 한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커뮤니케이션 이론>, 4권 2호, 112-154.
- 박진우 (2015). 한국 언론의 전문직주의와 전문직 프로젝트의 특수성. <한국언론정보학보>, 74호, 177-196.
- 박진우 송현주 (2012). 저널리스트 전문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한국언론정보학보>, 57호, 49-68.
- 백미숙 (2017, 4, 6). JTBC ‘팩트체크’와 SBS ‘사실은’이 더 필요하다. <미디어오늘>.
URL:<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070>
- 백영민 김선호 (2017). 팩트체크 뉴스 노출, 영향력 인식, 공유 행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61권 6호, 117-146.
- 송용희 (2005). 한국 종합일간지 기사의 사실성 입증 기제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9권 3호, 80-104.
- 안수찬 (2006). <스트레이트를 넘어 내러티브로: 한국형 이야기 기사 쓰기>. 서울:한국언론재단
- 유선영 (1995). 객관주의 100년의 형식화 과정. <언론과 사회>, 10권, 86-128.
- 유선영 이오현 (2001) <새로운 신문 기사 스타일: 역 피라미드 스타일의 한계와 대안> 서울: 한국언론재단.
- 이나연 (2018). 과학적 객관주의, 형식적 객관주의, 한국형 형식적 객관주의. <한국언론학보>, 62권 2호, 112-142.
- 이민용. (2002). 좋은 뉴스의 으뜸가는 조건으로서 진실 보도-사실, 사회적 구성, 진실 보도, 재귀성 (reflexivity). <언론과 사회>, 10권 3호, 9-51.
- 이재경 (2007). 한국 언론의 사상적 토대. <커뮤니케이션과학>, 26권, 5-28.
- 이준웅 (2010). 한국 언론의 경향성과 이른바 사실과 의견의 분리 문제. <한국언론학보>, 54권 2호, 187-209.
- 이준웅 김경모 (2008). ‘바람직한 뉴스’의 구성조건. <방송통신연구>, 겨울호, 9-44.
- 장바울 심해련·박재영 (2016).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 박재영 외 14인, <저널리즘의 지형> (79-126쪽). 서울: 이체.
- 정은령 (2017). 팩트체크 뉴스 의미와 한계. <관훈저널>, 143권, 19-25.
- 채백 (2015). <한국언론사>. 서울: 컬처룩
- 최순옥 윤석민 (2017). 협업형 사실검증 서비스의 의의와 과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4권 2호, 173-205.
- 최영재. (2005). 언론의 정파성과 대통령 보도, 그리고 언론자유. <언론과 법>, 4권 2호, 49-80.
- 최원형 (2017, 3, 30). 언론사 14곳 손잡은 ‘팩트체크’ 플랫폼 뚫다. <한겨레신문>
URL:<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88686.html>

- 최진호·한동섭 (2012). 언론의 정파성과 권력 개입. <언론과학연구>, 12권 2호, 534-571.
-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분석팀 (2017). <한국의 언론인 2017>.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동섭·유승현 (2008).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익명 정보원에 관한 연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8권 4호, 702-739.
- Adair, B. & Holan, A. (2011, March.11). Remembering David Broder and his passion for Fact-Checking, *PolitiFact*. Retrieved from <http://www.politifact.com/truth-o-meter/article/2011/mar/11/remembering-david-broder/>
- Amazeen, M. A. (2015). Revisiting the epistemology of fact-checking. *Critical Review*, 27(1), 1-22.
- Anderson, C., & Schudson, M. (2009). Objectivity, professionalism, and truth seeking in journalism. In K. Wahl-Jorgensen & T. Hanitzsch (Eds.), *The handbook of journalism studies* (pp.108-121). New York, NY: Routledge.
- Associated Press.(2017). *Associated Press stylebook*. New York, NY : Basic Press.
- Barnhurst, K. G.(2014). The interpretive turn in news. In M. Schreiber & C. Zimmermann (Eds.) *Journalism and technological change: Historical perspectives, contemporary trends* (pp.111-141). Campus Verlag.
- Barnhurst, K. G., & Mutz, D. (1997). American journalism and the decline in event-centered reporting. *Journal of Communication*, 47(4), 27-53.
- Boeyink, D. E. (1990). Anonymous sources in news stories: Justifying exceptions and limiting abuses.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5(4), 233-246.
- Corbin, J. M., & Strauss, A. (1990). Grounded theory research: Procedures, canons, and evaluative criteria. *Qualitative sociology*, 13(1), 3-21.
- Creswell, J. W.(2009).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 Thousand Oaks, CA: Sage.
- Dobbs, M. (2012). The rise of political fact-checking. New America Foundation. February.
- Duffy, M. J., & Freeman, C. P. (2011). Unnamed sources: A utilitarian exploration of their justification and guidelines for limited use.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26(4), 297-315.
- Fink, K., & Schudson, M. (2014). The rise of contextual journalism, 1950s - 2000s. *Journalism*, 15(1), 3-20.
- Forde, K. R. (2007). Discovering the explanatory report in American newspapers. *Journalism Practice*, 1(2), 227-244.
- Gans, H. J. (1979).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Graves, L. (2016). *Deciding what's true : The rise of political fact-checking in American journalism*. New York, NY : Columbia University Press.
- Graves, L. (2017). Anatomy of a fact check: Objective practice and the contested epistemology of fact checking. *Communication, Culture & Critique*, 10(3), 518-537.
- Graves, L., & Glaisyer, T. (2012). The fact-checking universe in Spring 2012. New America.
- Graves, L., Nyhan, B., & Reifler, J. (2016). Understanding innovations in journalistic practice: A field experiment examining motivations for fact-checking. *Journal of Communication*, 66(1), 102-138.
- Hallin, D. C. (1992). The passing of the "high modernism" of American journalism. *Journal of*

- Communication*, 42(3), 14-25.
- Kovach, B., & Rosenstiel, T. (2007). *The elements of journalism: What news people should know and the public should expect*. CA: Three Rivers Press.
- Latour, B. (2005).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 Lim, C. (2018). Checking how fact-checkers check. *Research & Politics*, 5(3), 1-7.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Lindlof, T. R. & Taylor, B. C. (2002). *Qualitative communication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 Marietta, M., Barker, D. C., & Bowser, T. (2015). Fact-checking polarized politics: Does the fact-check industry provide consistent guidance on disputed realities? *The Forum* 13(4), 577-596.
- Nerone, J. (2013). History, journalism, and the problem of truth. In B. Brennen (Ed.), *Assessing evidence in a postmodern world* (pp.11-29). Marquette University Press.
- Ostermeier, E. (2011,2,10). Selection bias? PolitiFact rates Republican statements as False at 3 times the rate of Democrats. *Smart Politics*. Retrieved from <http://editions.lib.umn.edu/smartpolitics/2011/02/10/selection-bias-politifact-rate/>
- Putnam, H. (1981). *Reason, truth and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eve, E. (2013,5,29). Why fact checkers find more GOP lies. *The Atlantic*. Retrieved from <https://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3/05/politifact-lies-republicans-vs-democrats/314794/>
- Rogerson, K. S. (2013). Fact checking the fact checkers: Verification web sites, partisanship and sourcing. Paper presented at the 2013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2013, Chicago, IL. Abstract retrieved from <https://ssrn.com/abstract=2301235>
- Schudson, M. (1978). *Discovering the news: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newspapers*. New York: Basic Books.
- Schudson, M. (2001). The objectivity norm in American journalism. *Journalism*, 2(2), 149-170.
- Searle, J. R. (1995). *The construction of social reality*. New York, NY: The Free Press.
- Siegel, A. M. & Connolly, W.G. (2015). *The New York Times manual of style and usage*. New York, NY: Three Rivers
- Spivak, C. (2010). The fact-checking explosion: In a bitter political landscape marked by rampant allegations of questionable credibility, more and more news outlets are launching truth-squad operations. *American Journalism Review*, 32(4), 38-44.
- Tuchman, G. (1972). Objectivity as strategic ritual : An examination of newsmen's notions of objectivity.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7(4), 660-679.
- Tuchman, G. (1978). *Making news*. New York, NY: The Free Press.
- Uscinski, J. E., & Butler, R. W. (2013). The epistemology of fact checking. *Critical Review*, 25(2), 162-180.
- Zelizer, B. (1993). Journalists as interpretive communities. *Critical Studies in Media Communication*, 10(3), 219-237.
- Zelizer, B. & Allan, S. (2010). *Keywords in news & journalism studies*. New York, NY: Open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Fact Check Journalism :With a Focus on Fact Check Journalists' Perception of "Facts" and Investigation of Their Fact Verification Processes

EunRyung Chong

(Director of SNU FactCheck Center,
Institute of Communication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nature of fact check journalism, a rising trend in the Korean news industry, with a focus on investigating fact check journalists' perception of facts and the processes they use to verify facts. Th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journalists who have experienced fact-checking for at least one year. This study found that fact check journalists perceive the "facts" that fact-checking journalism aspires to obtain as belonging to a different level from the facts that conventional event centered reporting provides. The fact check journalists insisted that in the current news production environment, journalists ought to simultaneously provide both levels of facts by distributing roles within the newsroom. While fact check journalists aimed to maintain objectivity, they stated that, when selecting items that they will fact check against, they are not free from their personal biases or their company's policies. With regard to the form of fact-checking articles, many fact check journalists chose the interpretive style that provides the conclusion at the end, instead of the conventional inverted pyramid style. Lastly, fact check journalists predicted that fact check journalism will create a positive effect of checks-and-balances among news outlets by enabling cross verifications of news articles.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of fact check journalism against the conventions of the Korean news industry were discussed.

Keywords: fact check, fact check journalism, fact check journalist, objectivity, fact, interpretation